

남양건설 “안전사고 없는 철저한 완벽 시공 만전”

마형렬 회장 등 임원진, 주월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방문 ‘무하자·고품질·성실’ 당부...호남 등 전국 각지 사업 활발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위해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완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무하자·고품질·성실 시공에 주력해야 합니다.”

호남 중견기업인 남양건설은 21일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광주 남구 주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정인수 대표이사, 김광아 남진건설 사장 등 남양건설 임원진이 참석했다.

남양건설 임원진은 지난 2014년부터 주요 공사현장을 선정,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은 남구 주월동 1283-1번지 일원에 아파트 5개동(지하3층, 지상33~36층 397세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공사)가 발주했고 남양건설(100%)이 도급했다. 지난 2021년 5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 회장은 현장 곳곳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무하자, 고품질, 성실 시공’을 당부했다.

마 회장은 “현장 직원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하자”고 말했다.

지난 1958년 5월1일 창립해 올해로 창사 66주년을 맞은 남양건설의 사시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이다. 남양건설은 사시를 기본으로 호남지역은 물론 충청·경상·수도·강원권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광주 주월 남양휴튼과 담양 남양휴튼, 영광 단주아파트, 부천 원종아파트, 밀양 가곡아파트 등 광주·전남권을 비롯해 경기·경상도 등 곳곳에서 LH 공동주택과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김해종합경기장, 창원 현대 공공주택도 시공 중이다.

남양건설은 인천계양아파트 건설공사, 대구북현아파트 건립공사, 장성기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순천시 신정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의신전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을 주주해 착공에 들어갔다.

앞서 남양건설은 서울 흥제동, 경기



고품질·무하자 완벽시공을 위해 안전 지도점검에 나선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가운데)과 정인수 대표이사, 김광아 남진건설 사장, 임원진이 21일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방문, 작업장 내 철저한 안전관리와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구리 수택동, 파주 교하, 남양주 진접·별내, 청주 성화 등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자체 아파트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암2차 남양휴튼(주상복합), 광주 월드컵경기장,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구학생문화센터, 광주 종합문

화예술회관,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광주주거U대회 수영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원주혁신도시 신사옥 등 대형 건축사업을 성공리에 시공했다. 토목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자랑한다. 고난이도 특수교량 시공 관련 기

술력을 보유한 남양건설은 현재 문해대교 도로, 통영광도 하수관거, 경도지구 연륙교, 인천 검단 오수중계펌프장, 영산강 성산2공구 등 다수 현장에서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남양-별교간 국도, 강진-마

량 국도, 홍농-백수간 도로 개설공사, 고금대교 연륙교 개설공사, 광주 신창택지, 경북 바이오산단 등 다수 토목공사를 마친 바 있다.

이 같은 실적에 우수 시공 기술력까지 인정받은 남양건설은 호남 최초로 금탑산업훈장(1994년)을 수훈했고 산업포장(1992년)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광주 운암 남양휴튼이 광주시 우수시공아파트로 선정됐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 18개국 건설단체들의 국제행사인 ‘제43차 이포카(IFAWPCA) 한국대회’에서 2015 광주주거U대회 수영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산업상 건축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21년 1월에는 국토관리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광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10회 광주상공대상’에서 마친호 남양건설 부회장이 지역경제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로 경영우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안전관리수준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남양건설은 LH가 발주한 1970년대 말 광주 운암주공임대아파트 시공 이후 전국 99개 현장 7만여세대 규모의 국내 최대 시공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선진화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 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제품·브랜드 등 개선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1일 “2024년 광주 산업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선진화 지원 계획을 수립, 내달 9일까지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시행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 우수 기업·제품의 낙후된 디자인을 개선, 시장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최근 지역 2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디자인으로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90%(18개)에 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85%는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최근 3년 내에 디자인 지원을 받은 기업은 7개사(35%)에 그쳤다.

또 이들 기업은 제품디자인 개선(14개사, 70%), 포장디자인(13개사, 65%), 홍보물 디자인(12개사, 60%), 브랜드디자인(10개사, 50%) 등의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내용은 기존에 생산·판매 중인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단기간 시장 창출이 이뤄지도록 ▲낙후된 제품디자인 개선 ▲제품디자인 상용화를 위한 양산화 지원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품 브랜드 디자인 지원 등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지원 내용으로 맞춤형 패키지 구성 또는 단독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은 사업장 또는 공장이 광주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AI)융합, 가전, 자동차, 로봇, 금형, 생체의료 등 지역 주축산업분야를 우선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과 지역디자인 통합 플랫폼(www.rddp.or.kr)의 공고·공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9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sanup@gdc.or.kr)로 신청하면 된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해 우수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선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임 부사장에 김대식

정기주총서 선임 의결...상무이사에 염규송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1일 본사 상생홀에서 제5기 정기주총회를 열고 신임 부사장에 김대식 전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장, 비상무이사에 염규송 전 광주은행 부행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대식(63·사진) 신임 부사장은 한

양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했으며 38년간 현대차와 기아차에 몸담은 자동차 전문가로서 현대차그룹 전략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데 이어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현장과 정책 기획, 해외시장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점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나아갈 방향과 부합한다는 평가다.

염규송(58) 비상무이사는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30여 년간 광주은행에 재직하면서 송정·주월·백운동 지점장과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임재만기자

조달청, 25일부터 ‘나라장터 상생세일’

조달청은 21일 “오는 25일부터 4월26일까지 조달기업 판로 지원과 수요기관에 신속집행·예산절감 기회 제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에서 등

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올해는 615개사가 참가해 1만3천78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노트북과 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현지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월출산 아래 사람 냄새가 나는

영암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신북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

영산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 가득한 곳

시종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독천 낙차거리 갈낙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천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암군

문의 : 062)650-2099